『承政院日記』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朝鮮王朝實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申炳周

1.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국가의 기록들을 제작하고 보관하였다.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備邊司譜錄』, 『承政院日記』 등과 같이 연대별로 정치·사회·경제의 주요 현안들을 기록한 자료를 비롯하여,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예법에 맞게 의식을 치루고 후대에 참조할 수 있도록 기록과 그림으로 현장의 모습을 정리한 儀執類 및 우리 산천의 모습을 임계적으 로 표현한 古地圖 등이 다수 제작되어 당시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실체들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학자라면 모름지지 자신의 학문과 현실관을 정리한 문집 한 권쯤 남기는 것이 시대 분위기가 되면서 각종의 문집과 저술들도 상당수가 남아 있다.

1866년의 병인양명 때 강화도를 침공했던 프랑스의 해군장교 주베르가 “이곳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 밖에 없으며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더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조선인들은 누구나 책을 가까이 했다. 바로 이러한 조선문화의 바탕에 기록을 종사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었다.

이처럼 기록문화가 중요한 조선시대의 역사적 전통이 과연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朝鮮王朝實錄』과 함께 조선시대 연대기 기록을 대표하여 세계의 기록유산으로까지 지정된 『承政院日記』의 자료적 특징에 주목하면서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전통과 이것이 주는 역사적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승정원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니다. 『승정원일기』는 위탁 방대한 분량의 자료로, 앞으로 이 책이 지니는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승정원일기』의 중요성을 파악하려는 측면에서 주로 『승정원일기』의 제작과 그 자료적 가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
과 함께 같은 연대기 기록이면서도 중복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 ‘승정원일기’의 제작과 이 기록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승정원일기’를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왕명의 편지를 담으면서 비서실의 기능을 했던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이다. 원래 건국초부터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는 1623년(인조 1)부터 1910년(융희 4)까지 288년 간의 기록 3,243책이 남아있다. 조서로 쓰여진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낙로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원본의 책 크기는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세로 40cm, 가로 28cm 정도이다. ‘승정원일기’로 제목이 된 한 책의 장수는 70~200장 정도로 펼차가 나타나며, 3,045책의 총 장수는 328,487장으로 평균하면 125장 정도가 한 책의 분량이다. 288년에 걸친 역사기록물이라는 점과 3,243책 총 문자량 2억 4,000여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서 ‘승정원일기’는 세계 최대의 역사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이러한 자료적 가치와 우수성이 확인되어 1999년 4월 9일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6월 27일부터 3일간 청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기역사업 제5차 국제자문회의에서는 ‘승정원일기’를 ‘直旨心體要節’과 함께 세계기록유산으로 권고하였으며,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국립자문위원회의 침략한 질문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이 이미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마당에 ‘승정원일기’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계인들은 주저했다. 아마도 제대로 된 국가 기록물이 갖추지 못한 다른 나라들은 국가의 공식 기록을 여러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편찬되는 것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가의 공식 연대기 기록이 2중이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그만큼 조선시대 기록문화가 탁월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1) 1977년 靑史編纂委會에서 간행한 ‘承政院日記 刊行事業概要’에 본문 체순과 수록연대 및月間, 刊本, 권수 등이 나타나 있다.
『승정원일기』는 실록 편찬에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왕의 최측근 기관인 비서실에서 작성함으로써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정치의 미세한 부분까지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초상인 "御箋"을 그릴 때에도 ‘備神’이라 하여 왕의 모습과 함께 정신을 옮기는 것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친척의 직책에 있었던 승정원에서 이루어진 기록이라면 그야말로 왕의 기본,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에 담으려 했던 것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정치의 최정점에 있었던 국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승정원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편찬이 완료된 후 지방의 시군에 퍼간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할 수 없었던 데 비하여, 실록보다 내용이 훨씬 상세한 『승정원일기』의 경우에는 주요한 전례나 국방·외교상의 현안이 있을 때 전대의 『승정원일기』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는 역사의 기록물이자 현재 정치의 참고자료로 항상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서로 보완관계를 지니면서 무엇보다 仁祖 때 이후 조선 후기의 역사를 풍신희부산하에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비록 『조선왕조실록』보다는 연대가 광범위하지 않지만 유사한 성격의 국가 공식 연대기 기록인 『日省錄』보다는 기록하고 있는 시대가 훨씬 광범하여 인조~영조에 이르는 시기의 기록은 특히 『승정원일기』의 자료가 크게 참고가 된다.

『승정원일기』는 현재 원본 1부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草書로 기록되어 해독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61년부터 원래 草서로 쓰여진 원본을 脫草하여 그 원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후, 영인

3) 『日省錄』은 1752년(영조 28)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을 중심으로 기록한 일기 형식의 책이다. 현존하는 것은 1760년부터의 기록이며 왕의 일정에서 편찬한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 기록이다. 『승정원일기』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관계를 지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동시에 대해서는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시기적으로는 『승정원일기』가 보다 광범한 시대를 다루고 있다.
사업에 착수하여 1977년까지 인조에서 천종시대 『승정원일기』의 영인본 126책과 고종에서 순종까지의 『승정원일기』 15책의 영인본 간행을 완료하였다. 4) 이 사업은 초서로 된 원문을 해독하기 쉽게 하여 『승정원일기』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문으로 쓰여진 방대한 원문은 여전히 소수의 연구자만이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94년부터 고종대의 『승정원일기』를 시작으로 국역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무척이나 반갑게 여겨진다. 『승정원일기』의 국역이 모두 이루어지고 자료 검색이 용이해진다면 『조선왕조실록』의 국역 및 CD로 제작이 견지 않은 것과도 같은 활발한 조선시대사 연구가 기대된다.

2. 內政府의 조직과 역할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전 단계로 먼저 승정원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内政府은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으로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한다. 승정원에서는 국왕의 지시사항이나 명령을 정부 각 기관과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국왕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서나 신하들의 건의사항을 왕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政院 또는 縣院, 銀쪽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銀쪽'은 목구멍을 뜻하는 한자어로, 승정원이 국왕의 말을 바로 대변하는 요직임을 암시한다. '銀쪽'는 중국 송나라 때 중국인 銀쪽門 안에 銀쪽司를 두어 천자에게 올리는 문서와 관아 문서를 주관하도록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경국대전』을 보면 승정원은 정3품 衙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맡는다. 당하관은 모두 문관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5) 成俶이 쓴 『용계총화』에는 승정원을 '喉舌의 職'으로, 승지를 '銀쪽學士'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학자 柳本鎭가 쓴 『漢京識略』 6)에는 다음과 같이 승정원의 위치와 구조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승정원은 인정전 동쪽 延英門 안에 있다. 이곳에는 다락이 있는데 현판을 六仙樓라 했다. 또 東書省, 銀쪽의 두 현판이 있다. 政院에는 啓字板(왕에게 아필 사항들을 정리한 판)을

4) 이 사업의 성과와 구체적인 내용은 『承政院日記 刊行事業概要』(국사편찬위원회, 1977)에 자세히 설명 있다.
5) 『經國大典』 尉典 承政院
6) 『한강지략』은 19세기 초반의 학자 柳本鎭가 서울의 역사와 궁궐의 모습 등을 자세히 정리한 附話의 성격을 띤 책이다. 유론에는 유독궁의 이들로, 선대로부터 수집하여 온 서울에 관한 전적을 토대로 하여 현지 담사와 조사, 진설 등을 함께 고증하여 이 책을 편찬했다. 19세기 초반의 서울 및 궁궐의 연혁과 이에 의한 일화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모서 두고 베일 세벽에 승지들이 출근하여 제자원 앞에 늘어 앉아서 각 방의 문서와 사무를 정리한다. 오전(오전 3시~오후 5시)이 되면 회식하고 승지들은 숙직한다. 주재 동과 사변가서는 승정원 북쪽에 있는 방에 거처하는데 이를 앞에 하고 서면문이 현판을 쌓았다. 동편 다락을 사량관이라 하며, 이문과 이현관을 쌓았다. 당후의 동쪽 방은 당사면으로, 터문간 가 거처하는 곳인데 이현관을 사면관이라 하고 또 현관을 사면관이라 하고, 鄭夏彥이 현관을 쌓았다. 주사면 현관 북쪽에 또 한 간의 작은 방이 있는데 보통 榻 방이라 한다. 그간 노회관의 서서를 간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통하여 승정원의 구조에 배치된 현관, 베일 세벽 승정원 관리들의 출근 현황, 각 방의 구성, 서수인의 보관상황 등을 알 수 있다. 위 기록에 나오는 서문중 (1634~1709), 이현석 (1647~1703), 정현안 (1702~1769)은 주로 숙종, 영조전에 활약한 인물로서 『한경지락』이 19세기 초반에 편찬되었음을 고려하면 조선후기 승정원의 기본 구조는 위의 기록에 나타난 모습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승정원의 임무에 대해서는 각종 법전에 '왕명의 출납을 관찰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왕명의 출납 뿐만 아니라 국왕의 최측근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다. 『六典條例』의 승정원 항목에는 승정원의 구체적인 업무로, 出納, 啓稟, 傳詔, 祭享, 登籍, 請牌, 請推, 動節, 令節, 科試, 呈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승정원에서는 국왕이 내리는 모든 명령과 지시들을 전달하고 국왕에게 보고되는 사무의 처리나 국왕의 자문에도 응하였다. 또한 외국 사신의 접대, 宗廟祭와 같은 국가의식에서 국왕 수행, 行政의 처리 및 인사 참여, 국방, 과거, 교육 등 국정 전반에 광범하게 관여하였다. 6승지는 모두 經筵的 參贊官과 출추관의 修撰官을 겸직하여 국왕의 학문 증진에 힘을 쏟았으며, 성육과 같은 국가 기록문의 작성에도 참여하였다. 승정원의 최고책임자인 도승지는 홍문관 직제학과 郷薦의 승진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겸임하기도 하였다. 이에 승정원에서는 궁궐내의 管繕(궁문이나 성문의 자물쇠)과 門무 등의 관리 및 몬을 관리하며 외관 출입자들에게는 출입증에 해당하는 信符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현재 경원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에서 출입자를 체크하는 역할과도 흔히한다.

이러한 업무상의 업무 역할로 인하여 승직직은 판서나 정승으로 승진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던 요직이 되었다. 조선시대 역대 承旨절을 거쳐간 인물과의 명단을 기록한 『銀臺先生譜』(刊9727)을 보더라도 權近, 黃喜 등 조선초기 인물에서 시작하여 再三間, 李颙光, 朴
世宗·金昌協 등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학자계 거의 망라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시대 승정원의 연은 고려시대의 관청인 銀臺南北院과 中秋院에서 찾아진다. 고려 성종 때 宋나라의 楼密院과 銀臺司의 세도를 모방하여 공중에 중추원과 銀臺南北院을 설치하면서 중추원으로 하여금 宿衛와 軍機를 맡아보게 하고 온대남복원으로 하여금 왕명을 출
남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승정원의 효라 할 수 있다. 10 고려종기 이후 온대남복원이 폐지
되면서中樞院이 비서실의 기능을 하였으며, 중추원이 楼密院, 密直司 등으로 개칭되면서
이전까지 承宣이라 불리던 職名도 승지로 바뀌었다. 조선초기에에도 승정원에는 몇 차례의 관
제 변화가 있었다. 1400년(정종 2)에 중추원이 의흥삼군부와 승정원으로 나누어질 때 중추
원의 知事과 좌·우·좌부. 우부승지 및 당후관이 승정관으로 독립하면서 승정원이 성
립되었고, 1401년에는 의흥삼군부와 승정원이 승추부로 합쳐지기도 했다. 다음의 자료는
정종 때 승정원이 독립되는 정황을 보여준다.

門下侍郞贊成事 河淸에게 명하여 官制을 다시 정하게 하였다. 都葬議使司를 고쳐 議政府
로 하고, 中樞院을 고쳐 三軍府로 한다. (…) 中樞院 承宣을 고쳐 承政院 承宣로 하고, 中
樞院 堂後를 承政院 堂後로 하였다. 11)

승정원의 제제가 자리를잡게 된 것은 세종대이다. 1433년(세종 15)에 이르러 승정원의
지위는 보다 분명하게 되었으며 직명도 도승지와 여러 승지로 통일되었다. 12 이후 승정원의
지위는 보다 분명하게 되어 여러 관청은 물론 藩鎭들까지도 직명 양에게 보고해야 할 중
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를 승정원에 우선적으로 알려야 했다. 이처럼 많은 정보를 일
차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승정원의 권력은 보다 강화될 수 있었다. 물론 현재의 비서실 기능
처럼 역대 王權과 臣權의 상호작용 속에서 승정원의 권력은 부잡을 겪었다. 예를 들어
세조대에는 王仁이란 신숙주·한명회 등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나와 정무를 보고 하고 이
들을 院相이라 불렀는데, 13 이러한 세조대의 변칙적인 승정원 운영은 예종·承宗 초반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4 경조대의 경우는 주지하사시의 수장결을 국왕의 최측근 기관으로 활용
하였다. 그런데 규장각의 주요 기능 중에는 時臣으로서의 기능을 비롯하여 言官·史官·試
官·經筵官의 기능, 국왕의 教書·代撰 등 실제 승정원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들이 매우 많았

등이다. 1책은 國初에서 1729년(영조 5)까지, 2책은 1745년(영조 21)에서 1782년(정조 6)까지, 3책
은 1850년(철종 1)에서 1868년(고종 5)까지의 인물이 실려 있다. 1888년(고종 25)에서 1894년(고종
31)까지 승지직을 지낸 인물의 명단은 「承旨先生案」(표9731)에 실려 있다.
10 「신석호」, 「승정원일기」 해제, 「한국의 명치 3」, 현대사, 1983.
11 「정종실록」 권 4, 정종 2년 4월 6일(신축).
12 「韓忠熙」, 「朝鮮初期 政啟院研究」, 「韓國史研究」 59, 1987 참조.
14 「院相之設, 祖宗朝所無, 乃出於世祖一時之權宜」, (…) 院相之名, 此自始而, 世祖·睿宗·相繼福陵, 殿下
以幼沖之年, 入承大統, 內務崇聖大妃輔導之益, 而以為外不可無大臣朝夕贊襄之力, 故乃令　君位政丞者,
更日入政院, 諸事出納公事, 盡亦因襲世祖之權宜而為之耳."(「承宗실록」 권 67, 承宗 7년 5월 15일)
다. 15) 따라서 규장각 중심으로 정치 운영을 한 정조 시대에는 승정원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승정원의 직제는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都承旨을 비롯하여 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右
副承旨・同副承旨 등 정3품 직책의 6승지와 정7품 직책의 注書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은 6조의 업무를 분장하기도 하였다. 즉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명조, 우승지는 예조, 좌
부승지는 호조, 우부승지는 공조, 동부승지는 형조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16) 오늘날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기획수서・경제수서・민정수서・경제수서・외교안
보수서・교육문화수서 등이 각각 배치된 것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6승지 중에서 도승
지・좌승지・우승지는 東壁, 좌부승지・우부승지는 西壁으로 놓았는데 입시할
때 이들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 이렇게 된것이기도 했다. 17) 특히 도승지는 의정부 정승, 이
조관서 등과 인사연을 두고 각축을 하는가 하면, 좌승지・우승지 이하를 지휘하면서 승정원 업무를
총괄하여 관조하는 위세를 발휘하였다. 18)
주사는 고려시대 이래의 당후관을 개정한 것으로 승지의 지휘를 받아 승정원 안의 기록과
문서를 관리하였고 왕명이나 승지의 지시에 따라 관정간의 업무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특히 주사는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게 하여 역사 기록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승정원
일기』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승정원에는 専任職인 6승지와 2명의 주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파견되는 假官이나 分官
도 있었다. 가판・본관은 實官・有故時 또는 특수한 행사에 있어서 實官의 업무를 대행하는
관원인데, 승정원에서는 假承旨・假分承旨・假變假注書・假注書・分注書 등이 그들을, 승정
원의 업무가 파하할 때 임시로 이들을 파견하거나 임명하였다. 본승지가 가승지는 內殿舉動
이나 經歴舉動 등에 임시로 차출되었다가 행사가 끝나면 전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 그
나 임진왜란이 임어난 후 전쟁과 관련 사시설기 기록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
한 假變假注書는 이후 국가적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업무를 맡게 하기 위하여 정규직
화하였으며, 軍務와 勝使・啓聞 등 국방・외교・법률 관련 업무를 주로 기록하였다. 1867
년에 편찬된 『六典條例』의 史典 『승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6승지, 注書 2명, 假變假注
書 1명과 함께 史書 25명, 使令・驕從・水工・待備院軍士 등 徒隷 50여명이 승정원 관리들
의 업무를 보조로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 17세기에 저술된 李accès의 『巋峰類說』에도

15) 金龍德, 『奎章閣考』, 『중앙대학교논문집』, 1957 참조.
17) 『都承(領旨申) 令右令為東壁, 左副令 右副令 同副令為西壁, 以稱備隷中六官.』(『六典條例』권 2 史典
『承政院』)
18) 한충희, 앞의 책.
20) 『承政院掌王命出納, 都承旨 左承旨 右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 同副承旨 各一員, 注書二員, 假變假注書
一員, 史書(書吏二十五人, 輪流分掌六房), 政領(使令三十五名, 寶加出十二名, 加出引陪及請座使令十
승정원의 관서는 별사, 주사, 교사, 기관, 통행을 합하여 모두 36인을 두었다고 기록하여 21) 승지와 주서를 보좌하는 하급 관서들이 이 시기에도 다수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승정원의 업무 규칙은 담고 있는 자료로는『政院故事』, 『銀臺便攜』, 『六典條例』, 『銀臺條例』 등이 있다. 『政院故事』는 정조 제위 기간에 승정원의 업무 규정에 관하여 내려진 국왕의 편의를 정리하여 순조대에 편찬한 것이며, 『銀臺便攜』는 주로 영조, 정조, 순조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현종대의 일부 내용까지 수록대상으로 하여 현종 연간에 편찬하였다. 19세기에 승정원의 소관 사무에 대한 각종 사례와 업무와 연관된 법적 규정, 업무 수행의 지침과 절차, 참고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다. 『六典條例』는 1865년(고종 2)에 편찬한 『대전회통』의 간소한 근무관을 고려하기 위하여 그 다음 해에 간행한 10권 10책의 법전으로, 대원군이 주도한 고종 초기의 개혁작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편찬되었다. 『銀臺條例』는 대원군의 명을 받아 승정원에서 정무를 전담, 집행하는 과정을 모아 1870년에 정리한 책으로 고종 초기 대원군이 주도한 관개혁, 나아가 정치개혁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대조례』에는 대원군의 교례가 붙어 있어 이 책의 편찬에 대원군의 의지가 상당히 간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승정원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그 명칭도 변화가 생겼다. 1894년 간호개혁으로 관제 개편이 일어나자 승정원은 관내 부 산하의 『承政院』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권한도 대폭 축소되었다.
왕의 악화를 가져오는 근대적 정치 개편으로 말미암아 왕실 비서실도 그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1895년 4월에는 승정원은 다시 『承政院』의 『承政院』으로 되었다가 이내 11월 독립하여 비서실로 개편되었다. 1905년 다시『承政院』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1907년 폐지되었다.
이러한 비서실 개편은『承政院일기』의 제목에도 반영되었다. 현재 규정과 소장증인『承政院일기』,『궁내부일기』,『비서일기』, 등은 제목만 다른 책 국왕의 비서실에서 기록한 일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함께『承政院일기』라 해도 무리가 없다. 다만 1890년대 이후 비서실의 변연한 기구 개편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던 근대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승정원은 의정부 6조와 함께 조선시대 국정의 중심기관으로서, 6승지 및 재상에 비급 가는 정치권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도승지의 의정부의 정승이나 이조관사들과 인사권을 두고 각축을 하는가 하면 좌승지 이하를 지휘하면서 업무를 충실 관리하는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고책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서실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면 승정원 또한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처럼 막강한 권한의 중심지였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된다. 따라
서 이곳에서 기록된『승정원일기』는 제목처럼 단순히 ‘비서실’이라는 한 부서에서 작성한 일기가 아니라, 왕을 정점으로 한 국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기록이 되는 것이다.

3. 『承政院日記』의 제작과 활용

승정원의 업무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승정원일기』이다. 편찬은 ‘承史’라 정해진 승지와 주사가 공동으로 담당하였으며 최종 기록은 주사들에게 맡겨졌다. 승지는 무관도 임명될 수 있었으나 주사는 반드시 학문과 문장이 정중한 문관을 뽑아서 임명하였다. 또한 주사는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하게 하여 승정원을 거친 문서나 기록뿐만 아니라 실록 편찬에 참고했던 국내외의 각종 기록들을 두루 검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을 위하여 예문관에奉敎(정7품, 2명)·大敎(정8품, 2명)·檢閱(정9품, 4명) 등 8명의 한학을 두고 이들을 전문관의 역할을 하게 한 것처럼『승정원일기』의 편찬을 위하여 전임사관의 역할을 맡은 주사를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사는 승정원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사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임시로 주사를 붙였는데 이를 ‘假注書’라 하였다.

주사가 기록한 메일의 일기사 다시 한 달 분을 정리하여 국왕에게 올려 제가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왕에게 올리기 전 일기와 박으로 유출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시켰다. 인조에서 경종대까지의 초기 기록은 2달 또는 3달의 기록이 한 책으로 편집된 예도 볼 수 있지만, 영조대 이후에는 한 달 분량의 일기가 1책으로 편집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분량에 따라 한달에 2책씩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개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前’과 ‘後’로 분류하였다.

제작이 완료된『승정원일기』는 승정원 일대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사는 승정원내에 보관된 모든 서적·문서를 관리하였다. 승정원내에 보관된 文籍의 종류, 수량, 보관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곳에서『승정원일기』를 작성하고 국왕의 빈번한 서적 하사, 승지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경복궁은 물론 군국의 기밀문서, 인사, 典故 관계 문서 등 그 종류와 수량이 엄청났다고 추측되며, 그 보관처는 승정원 인근에 있는 장소였다고 추정된다. 23) 조선 전기에는 승정원이 경복궁 근정전의 서남쪽 문 앞에 위치하였고, 24)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이 정궁으로 기능하면서『승정원일기』 또한 이곳에서 보관하였음을 것이다. 한편 연간에 간행된『宮闕志』의『昌德宮志』조항 ‘승정원’조에 의하면, “承政院은 仁政殿 동쪽에 있다. 하나는 창덕궁의 文政門 밖에 있는데 王命의 出納를 맡고 있다.” 25)로 기록하여 승정원이 궁궐

24) “承政院在月華門外.”(『宮闕志』, 서울학연구소, 1994 영인본, 24쪽)
내부와 외부에 각각 한 곳씩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궁궐 외부에도 승정원을 둔 것은 왕에게 보고할 내용을 보다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820년대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담은『東閣圖』에는 인정동 동쪽 탑관하고 文書庫 사이에 ‘銀峯’라는 명칭으로 승정원의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일대에『승정원일기』가 보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문중대에 이미『승정원일기』를 참고한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②⑥ 조선 초기부터 국정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漢京識略』에도 “세종이 일찍이 시의가 엽성하다고 집현전 학사들에게 모두 관인의 직책을 겸하게 하여 기사를 종부하게 하고 처음으로『史記』의 기록 것을 세웠으며 승진들도 기록하게 하라고 했다”고 기록하여②⑦ 세종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승정원일기』의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가의 평안장 전투, 떠물의 처리 문제 등 복잡한 정치 및 사회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전대의『승정원일기』를 참고한 사례가 반복하게 나타난다. 성종대에는 원인 세조의 전교를 찾기 위해『승정원일기』를 참고한 사례가 보이며, 중종대에는 평균 충무공을 조선에 송환하기 위해 이에 관한 처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신숙주가 통신자로 갔던 후에 보고한 사례를 실은『승정원일기』를 참고한 사례가 보인다⑧. 이 외에 가혹이 극심하므로 제헌을 내키기 위해『승정원일기』를 참고할 것을 지시하거나⑨, 대표과 제헌 때의 일을 참고하기 위하여『승정원일기』를 참고한 사례에서⑩,『승정원일기』가 국가의 주요 의식 때에도 자주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승정원일기』는 광해군대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임진왜란 이후의『선조실록』을 수정하는 데도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⑪.

그러나 불행히도 조선 초기에 작성된『승정원일기』의 원형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전기『승정원일기』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다른 국보급 자료와 함께 모두 소실되었다. 실록에 의하면 "1592년 4월 1일 도성의 궁궐에 붙이나 역대의 보물과 서적, 춘추관의 각 왕조실록, 사초, 승정원일기가 모두 남김없이 다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에도『승정원일기』의 수난은 계속되어 1624년 이괄의 난으로 도성이 반군에 의해 함락되자 선조

25) 『承政院在仁政殿東。一在昌慶宮文政門外。掌出納王命』 (『宮闕志』, 73쪽)
26) 『문중실록』 권12, 문중 2년 2월 22일(병합)
27) 『漢京識略』 권1 향내各司『承政院』
28) 『중종실록』 권62, 중종 23년 7월 7일(병합)
29) 『중종실록』 권73, 중종 27년 5월 1일(무신)
30) 『중종실록』 권73, 중종 27년 8월 17일(임진)
31) 『광해군기』 권21, 광해군 1년 10월 5일(계속)
32) 『都城宮省』 (一) 歷代實修及文武侯諭文陝旅所藏書籍, 春秋館各朝實錄, 他庫所藏前朝史考(修高麗史時)承政院日記, 畫燒盡無遺, 外內倉庫, 各署所藏, 並被焚』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일 경인)
대 외해군대의『승정원일기』가 소실되었으며, 이후에도 화재나 부주의로 인하여 상당수의『승정원일기』가 사라졌다. 또한 "근래에 화재 이익으로 안하여 큰자에 남존들이 혹은『승정원일기』를 훼처기도 합니다"라는 기록에서 보듯٣٣)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일기의 일부가 유실되는 경우도 있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 매일 기록된 일기이므로 일기의 전량이 남아 있다면 6,4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기록된『승정원일기』는 잔해한이나 1624년의 장恸의 난과 같은 큰이 행해의 변고적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고, 인조대 이후에 기록되어 판정된 책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1744년(영조 20)과 1888년(고종 25) 등 몇 차례에 걸쳐 화재를 받아『승정원일기』의 일부 책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자 시강관의 기록인『춘향일기』와『조선일보』를 바탕하여, 주석سائل 지원 편성과의 기록인『堂後日記』와 지방까지 널리 수집된 각종 기록들을 정리, 종합하여 풍진 부분을 채워 나갔다.

조선후기『승정원일기』의 修補 작업에 가장 힘을 기울인 국왕은 영조였다. 영조는 1735년(영조 11) 승지 김광식이 임진왜란 이후의 『승정원일기』를 수보할 것을 청하자 이를 올게 여겼으며, ٣٤) 1744년(영조 20) 승정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1592년(선조 25)부터 1722년(경종 1)까지 130년 이 일기가 모두 소실되어, ٣٥) 1746년(영조 22) 5월 일기문의 설치를 명하고 곧바로『승정원일기』의 개수작업에 들여가 다음해에 이 시기『승정원일기』 548권의 개수를 완료하였다. 원래의 기록에 비해 내용이 1/3로 줄어들었지만 기사마다 출처를 명시하고 간략에 기사를 쓴 사람과 교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영조대에 보였던 이러한 노력들은 고종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고종대에는 1888년의 화재로 361권의 일기가 소실되자 이듬해에 일기문을 설치하고 개수 작업을 착수하여 1890년에 개수를 완료하였다. 이후에도 관리 부주의로 인해『승정원일기』는 몇 차례 유실되었지만 그때마다마다 관련 기록을 근거로 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여 완결된 상태로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개수작업이 끝임없이 진행되었기에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 승정원이 폐지될 때까지 총 3,045책의『승정원일기』가 결본이 없이 남게 되었고, 이를 계승한『비서원일기』등을 포함하면 조선시대 비서실의 일기 총 3,243책이 오늘날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에『승정원일기』는 기근이나 전염병의 발생으로 조세감면의 조치가 필요할 때 참고되었으며, 죄인의 형용 적용이나 신앙 및 종묘제 등 국가의 주요 의식 때 긴요하게

٣٣)『세조실록』권40, 세조 12년 11월 17일(음력).
٣٤)『영조실록』권40, 영조 11년 9월 9일(음력).
٣٥)『영조실록』권60, 영조 20년 10월 13일(음력).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모 협의를 받는 피의자가 전대의 『승정원일기』 기록의 상소문이나 발언 내용을 근거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승정원일기』에 읽힌 체미란 안에피소드도 있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1773년 7월 23일 영조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모든 신하들이 축하 의식을 가지기를 청했으나 왕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때 선비으로 있던 어떤 정조가 소매 속에서 단신에 쓴 국왕의 글을 꺼내 놓았다. 그것은 꽤 1년전 같은 날 영조가 다음 해에는 축하 의식을 받겠다고 약속한 글이었다. 바로 『승정원일기』 들어가기를 명하여 세손의 간지와 맞추어 보니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국왕 영조는 세손의 종명에 감탄하여 더 이상 사량을 하지 못하고 탄일 의식을 치루었다고 한다. 36)

그러나 『승정원일기』의 잇은 열람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조선실록』의 정조 7년 7월 1일의 기록에 의하면, 정조는 승지에게 이르기를,

『승정원일기』는 폭 사나라 때의 토목과 같은 벽화이다. 마당히 비밀히 보관해야 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를 지목하고 다루었어야 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이례로는 한결같이 각별들에 손에 맡겨두고 전연 착실하게 악수하지 않으니, 너무도 짐작이 없어버리고 있다. 지금부터 이르는 긴급하게 행정할 일이 있어 전례를 상고하는 경우와는 질대로 허락하지 말도록 하고, 비록 혹시 직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작성기에 따르 게 하러 하사를 만들어 놓고, 아무 해 아무 날 아무 날에 승지 아무개가 아무 일을 인하여 아무 해 아무 날 아무 날의 일기를 고찰해 보게 된 다음에, 주서 아무개가 서재에 들어가 감독하였음을 조심해서 써 놓게 하여, 잦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고 하여 『승정원일기』가 너무 쉽게 참고되는 폐단을 막고, 혹 참고할 경우라도 책을 꼭 쌓은 사람과 날짜를 분명히 기록하여 책의 소재를 확실히 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사정, 사정, 사정, 사정 등의 이유로 실록을 보관한 사고 문을 열고 실록을 거냈을 때의 상황과 날짜, 인명, 사정, 사정 등을 기록한 장서점검부 성격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비해, 37) 『승정원일기』를 열람한 경우 제도적으로 점검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승정원일기』는 자주 참고용으로 열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에 정치 현안이나 전례의 검토에 있어서 오늘날 법전이나 판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국정에 자주 참고되었다. 이것은 이 책의 기록이 지니는 가치를 당시인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870년대 이후 규슈 열강 및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신문화를 흘수한 1894년 조선

36) 『영조실록』 권121, 영조 49년 7월 23일(경신).
37) 현재 규정하에 「실록정지」 357책, 「신정정지」 201책, 「外奎章閎정지」 20책 등 585책의 형 지안이 보관되어 있어서 습기에 보관된 실록과 선원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1894년에 일어난 감오정쟁은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행정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근대 일본의 내각제를 도입하여 궁내부·의정부의 2부와 내무·외무 등 8야문을 설치하고 관제를 대폭 개정하였다. 이에 승정원은 궁내부에 부속되어 승선원으로 개칭되었으며, 도승전·좌승전·우승전·좌부승전·우부승전 각 1명과 記注官·記事官·主事 각 2명을 두어 왕명의 출납과 일기 기록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승정원일기』의 명칭 또한『승선원일기』로 바뀌었다. 이 해 10월에는 승선원을 폐지하고 궁내부 대신이 왕명의 출납을 대신하면서『궁내부일기』가 작성되었고, 1895년 4월 궁내부에 비서감을 설치하면서 다시『비서감일기』로 명칭이 바뀌었다. 1895년 11월에는 비서감을 비서원으로 개칭하면서『비서원일기』가 나타났다. 1905년 비서원을 비서감으로 개칭하면서『비서감일기』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1907년 궁내부 관제가 대폭 축소되어 비서감이 폐지되고, 비서감의 기록 기능을 규정관에서 담당하면서『규정각일기』가 작성되었다. 1894년 이후 이처럼 다양한 명칭의『승정원일기』가 나타나는 것은 근대사 이후 왕실 비서실 기능의 거듭되는 변화와도 궤도를 같이한다. 국왕을 정조위하여 하는 정상적인 왕권 행사가 재해극한을 받았고 이것이 비서실인 승정원의 기능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승정원일기』를 계승한 이러한 자료들은『高宗實錄』과『純宗實錄』이『조선왕조실록』의 정통성을 상실하고 기록이 소략한 실정에서 19세기 후반 이후 국가의 공식기록으로서 그 부족분을 상당히 메울 수 있다고 여겨진다.

『승정원일기』에 대한 다양한 명칭의 기록은 결국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차례의 관제 변화를 겪은 근대사의 모습이『승정원일기』의 제목에도 압축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의 격동 속에서도 조선시대 승정원의 기록은 그대로 이어져『승정원일기』는 총 3,243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조선왕조실록』이 조선의 역대 왕 중 어느 누구 하나의 단절없이 꾸준히 정리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승정원일기』또한 비록 인조대 이후에 한정되는 한, 288년간의 역사기록을 단절없이 없이 그리고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대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4. 『朝鮮王朝實錄』과의 비교 사례

『承政院日記』는 무엇보다 매일의 기록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하루의 정치, 한 달의 정치, 일 년의 정치의 흐름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또한 국왕의 동정을 비롯하여 정치의 주요 현안이 되는 자료나 중앙이나 지방에서 을
런 상소문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여 무엇보다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드보이게 한다. 그리고 왕실 주변의 정황이 중심이 되는 만큼 국왕의 건강이나 심리상태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고, 국왕의 정무를 보던 장소와 시간대별로 국왕의 이동 상황 등을 곧 기록하여 국왕의 "행실"과 "안녕"을 읽어본다.

특히 국왕이 주체가 된 행사는 조선왕조실록 등 여타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보다 세밀히 기록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그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승정원일기의 특성에 나타난 내용의 자료적 가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승정원일기』는 기록이 매우 자세하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 분량을 비교해 보자. 『숙종실록』의 숙종 26년 7월 25일의 기록에는 좌의정 이상백 등이 평안도 지역에 학문 진흥이 되어선 선비들이 학문을 전수받을 곳을 구하려면 문신 수령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과 평안도 형제를 숙종에게 보고하고 왕이 이를 수용한 내용이 나온다. 『숙종실록』에는 이 대목이 약 10행(1행은 30자)에 걸쳐 나온는데, 『승정원일기』의 같은 날 기록에 의하면 이 내용은 4행(1행은 30, 1행은 27자) 21행에 걸쳐 있다. 『숙종실록』에서는 이세백의 건의한 핵심 내용과 결과만을 기술한 반면, 『승정원일기』에는 왕과 이세백이 다는 내용을 모조리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왕의 의전이나 지시한 ‘이 부분’과, 이세백의 말인 ‘이아두’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이 세백의 건의 내용이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세백은 문신 수령이 무신 수령보다 민폐를 제거하는데도 혼신 적극적인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주, 경주, 부산 등지에 문인 수령 과정을 허락받는다. 이처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통하여 실록에 없었던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가 비서실의 기록인 만큼 왕과 신하들의 독특 기록은 특히 자세하며, 왕의 표정 하나 감정 하나까지도 수록하여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역대 국왕들 스스로가 자신의 병예에 대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약방이나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과 국왕의 기록과 형제 및 나아가 왕실의 전상 상태에 대해서도 『승정원일기』는 많은 분량을 헌액하고 있다. 국왕의 연행, 기분 하나하나까지도 돋보이지 않으려 했던 철저한 기록정신이 야망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분량의 기록을 『승정원일기』를 탄생하게 한 근본요인이 해석된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영조실록』의 영조 15년 5월 음력 30일 조에는 ‘영조대에 승려가 주서시를 두는 문제를 두고 강화유수가 지도를 작성해 올려 보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지도 작성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 같은 날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면 지도의 작성자는 강화
유수의 관인인 심동현과 경기수사의 군관인 이광범이 나타나 있다.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언급이 없었던 하급 관리가 새롭게 찾아진 것이다. 39)

1743년(영조 19) 윤 4월 7일 성균관에서는 국왕이 주최하는 대복정이 행해졌다. 『영조실록』에는 대사례 의식의 구체적인 경과와 함께 『五禮儀』와 『大明會典』 등에서 대교육례를 참고한 내용을 기록한 데 비하여, 40) 『승정원일기』에는 오히려 당일의 의식에 관한 기록보다는 전날인 4월 6일 훈련도감 등 각 부처에서 왕의 경호를 위한 군사의 정발 등에 관해 보고 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1) 『승정원일기』에는 주요한 의식에 앞서 이를 준비, 점검 하는 보고와 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1866년(고종 3) 3월 3일의 기록에는 고종이 직접 창덕궁에 나아가 유생들을 응시한 정황이 나오는데, 왕이 거동한 시간과 응시한 신하의 명단이 나오며, 왕의 복장과 궁궐에서의 이동 경로, 시험 실시 과정,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42) 특히 시험 실시 과정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주로 받은 태도를 모두 기록하여 시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유생들의 입장면, 강의할 서적의 사정과 주요에 의해 강의할 부분이 정해지는 과정, 시험의 제출, 합격자 발표와 포상내용 등을 짧게 없이 기록하여 현장의 모습을 증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구체적인 왕의 언 행, 그리고 조선시대 생활사의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오늘날 의식을 재현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승정원일기』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된 사례를 살펴보자.

1759년(영조 35) 6월 초여름, 66세의 신랑 영조는 15세 신부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이하였다. 43) 조선 왕실의 최대 경사인 결혼식 모습이 『승정원일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먼저 『영조실록』에는 6월 9일 “三陳摶을 행하여 幼學 金漢淵의 밥로 정하였다. 大婚을 6월 22일 午時로써 摶고하고 이날 정사를 열어 김한구를 토녕부 도정으로 삼았다”는 부분이 나온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이에 앞서 6월 2일에 제간식을 하여 김한구 등의 밥을 뽑은 기사를 실고 있어서 간식의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44) 그리고 6월 9일의 기록에는 김한구의 밥을 왕비로 정하고 왕이 賓賓에 의견을 구하는 과정과 예조에서 친척의 간식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 등 실록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 실려 있다. 6월 13일의 남제 의식에 대해서도 『영조실록』은 “국왕이 明政殿에 남서 어 낙례를 행하였다. 정사 유적과 부사 조운규 등이 궁궐 마당에서 4배를 행하고 彩興

39) 『승정원일기』제891책, 영조 15년 5월 30일(영인본 48책, 103쪽 남).
40) 『영조실록』권57, 영조 19년 윤 4월 7일(경선).
41) 『승정원일기』영조 19년 윤 4월 7일(영인본 52책, 366쪽).
42) 『승 정원일기』고종 3년 3월 3일(영인본 고종 2책, 889쪽 남).
43) 이 때 행사의 모습을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로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가 있다.
44) 『승정원일기』제1, 169책, 영조 35년 6월 2일(영인본 65책 353쪽 남).
를 따라서 나갔다”고 간략히 기록하였지만,『승정원일기』에는 납채의 의미를 기록한 문장을 비롯하여, 국왕을 편견한 신하의 명단, 왕의 복장과 이동 경로, 가마의 위치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혼례식의 하이라이다로 인식된 틀린(왕비를 맞이하려 별궁에 가는 의식)에 대해서도 실록에는 “국왕이 귀임하여 나가기 전에 천영례를 행하였다”고 간략히 언급한 반면에,『승정원일기』의 같은 날 기록에는 실례(오전 3시~5시)에 왕의 거동이 있자 도승지를 비롯한 승정원의 숭지·기사관 등이 함께 생동하고,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신고한 사실, 대관(의무공) 박차에 이르는 후 왕이 숭지를 불러 지시한 내용, 왕궁 후 약방에서 왕을 물안한 내용까지가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엽조의 결혼 의식이『영조실록』과 비교해 볼 때『승정원일기』에는 보다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엽조의 결혼식은 의식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한『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執』가 있어서 그 모습을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지만,『승정원일기』는『조선왕조실록』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한 것과는 달리 대체적인 의식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자료만으로도 혼례식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영조실록』 엽조 36년 3월 16일에는 1760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청계천 준설공사를 완료하고『淵川事實』이라는 책자를 완성한 내용과 함께 엽조가 당당자·洪鳳漢에게 실현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엽조는 준천한 뒤에 몇 년간을 지탱할 수 있는가를 묻고 홍봉한은 그 효과가 백년간 같 것이라는 대답을 한 사실을『영조실록』은 암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던 데 같은 날짜의『승정원일기』에는 실록에 간략히 요약된 사항에 대해 매우 자세한 내용을 실고 있다. 우선 국왕과 함께 대담한 인물들의 관직과 성명이 기록되고 국왕과 신하들의 대화 내용이 모두 실려 있다.47) 왕이 직접 준천한 경계를 묻고 호조판서 홍봉한이 석전교에서 광동교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답한 내용과, 수포교에서 광동교에 이르는 지역은 석에서 공사가 힘들었다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국왕이 직접『준천사실』이라는 책명을 정한 사실 등은『승정원일기』를 통해서만 접할 수가 있다. 한편『영조실록』에는 홍봉한의 보고에 대해 실록을 기록한 진관이 “하나의 시실을 소통한 것에 불과하니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에 급급하여 지나친 과장하였다”고 비판한 내용이 실려있는데,『승정원일기』는 바로 당일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진관의 평가는 다양하게 기록한 점은 실록의 특성과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실록과 비교했을 때『승정원일기』가 모든 정보에서 자세하지는 않다. 아무래도 국왕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보고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왕이 주체가 되지 아니했던 의식이나 지방에서 처리되었던 사항 기록에 대해서는 오히려『조선왕조실록』과는 간

45) 왕비로 간택된 규수는 친정 의식을 행하기 전까지 미루던 별궁의 하나, 별재에서 국왕을 맞이하는 부담을 줄이고, 미리 왕비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 별궁을 설치하였다. 조선후기의 가례에서 별궁으로 사용된 장소는 대청관, 여의궁, 운현궁, 안국동 별궁 등이다.
46)『영조실록』 엽조 35년 6월 22일.
47)『승정원일기』 제1,179책, 엽조36년 3월 16일(영인본 65책 963쪽 나).
략히 취급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1817년(순조 17) 3월 11일에 행해진 왕세자(효명세자) 입학식 행사에 대해 『정유실록』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이 의식의 절차와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만 『승정원일기』에서는 담당자에게 받은 업무 보고와 국왕의 지시 사항만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진과 같이 전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 등은 각 관청의 기록을 후대에 종합적으로 정리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콤플 루체제이다. 이와 같은 기록은 오늘날 신문의 사설이나 논평처럼 후대 사관들의 견해도 함께 제시하여 사건에 대한 ‘해설’ 정보를 읽을 수도 있다. 실록의 ‘기록’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의 정리에 중점을 둔 『승정원일기』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서로 보완하여 이용될 때 보다 자료적 가치가 커진다. 이와 정조대 이후 국왕의 일기 형식으로 국정 전반을 서술한 기록인 『일상록』도 『승정원일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자료로 손꼽힌다.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를 보다 독보이게 하는 요소는 앞 부분에 기록된 날짜와 매일의 담당자들 기록한 점이다. 특히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날짜 관련자료는 288년의 날짜 기록이 그 자체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날짜(달음, 놉(월), 여(비), 쌀(년) 등으로 매일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午前午後雨’, ‘夜雨’ 등으로 하루 중 일기의 변화까지도 기록하였으며, 비가 내린 경우 즉시 기록에 수록하여 보장한 결과까지 녹록히 정리하였다. 『승정원일기』의 날짜 관련 기록만을 모아도 조선시대 288년간의 일기상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 전통시대 기후 연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후 예측에도 큰 도움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료의 통계 처리는 오늘날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승정원일기』에는 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승정원 벽습자치들의 실례를 꼭 적었다. 앞 부분에는 6명의 숭지리 및 부여, 가주, 사번가주서 등의 실례가 나온다. 메일 메일 기록작성자의 실례를 꼭 적었다. 범이나 사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황까지 ‘病’, ‘在外’, ‘式暇’ 등의 표현으로 기록하여 기록의 주제를 분명히 하였다. 기록의 실명화는 이 들에게 책임감과 함께 국가의 공식 기록에 자신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에게 자율심과 사명감도 아울러 부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각종 기록에서 참여자의 실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儀軌』와 같은 자료에서는 낭만이나 하급 기술인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국가적 기록물에 이름만으로도 하급 장인들임을 알 수 있는 申Pont(신동이), 金士綬(김노미) 등과 皆愛(사애) 등 九女들의 실명이 당당히 들어 있다. 49) 물론 행사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미친인물들에게까지 자부

48) 특히 지진과 관련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전 지역의 발생 상황을 매우 자세히 기록한 것이 주목된다. 지진에 관한 기록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참조가 되고 있는 등 현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49)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工匠秩 부분 참조.
심을 고취하려는 국가적 배려가 슬어 있다. 외래나『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철저한 實名 기록 방식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현재에도 이러한 방식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연대기 자료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조선왕조실록』이 가장 일목요연하게 조선시대 전체의 모습을 담은 자료라면,『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여타 자료들은 작성 주체나 방법상의 차이에서 각각의 특징이 있다.『비변사등록』은 16세기 이후 국가의 최고회의기관 이었던 비변사의 일기체 기록으로서 오늘날 국무회의 회의록에 해당한다.『일성록』은 1760 년(영조 36)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2,327책의 일기로서『승정원일 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각기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면서『조선 왕조실록』의 편찬에 필요한 일자사료로서 활용되었으며, 특히 조선후기 역사상을 종합적으 로 이해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준다. 정조대에 규정과 검서관을 지낸 학자 이덕무의 저술『정 조관찬서』권70의「先考咸鏡監府年譜」에 의하면, 그가 45세 되던 해에 정조의 명을 받 아『일성록』을 편찬하기 위하여『승정원일기』를 축출한 기록이 나타나며, 이외에도 이들 관 찬 연대기 기록을 서로 참고했던 상황은 여러 자료에서도 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와 가장 흡사한 성격을 지는 자료가『日省錄』이다. 원래『일성록』은 순수한 역사기록이라기 보다는 왕의 修己를 위한 기록의 뜻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朝廷과 내외 諸官에 관련된 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조는『弘齋全書』에서

内閣에서 정리하는『日省錄』은丙申年(1776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 상세한 記述과 풍자없는 수록을 政院의 起居注는 이라 심판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개 臣僚들 을 이끌고 經筵 聖敘에서 酬應한 내용, 관료들이 정서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 上疏나 上 策 등, 만으로 百司의 문건에 대한 判簿과 밖으로 활동의 狀態에 이르기까지 조급도 빠뜨림 이 없고 포괄하지 않음이 없으니 실로 거대한 典禮이고 광대한 기록이다。50)

라고 하여『일성록』의 기록이『승정원일기』보다 방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정

50) "内閣所修之『日省錄』, 丙申以前所未曾有者也. 其記述之詳盡, 載錄之繕備, 政院之起居注, 殆不相什一焉. 改自臣僚皆接, 經筵對講, 官員言事, 公車章奏, 内而百司簿判, 外而八道啓狀, 廟所或遺, 無不彙括, 龍記興也屬記也."(『弘齋全書』권165『日得錄』, 대학사 1986 영인본 34쪽 라)
조가 의속적으로 국왕의 일기 형식으로 『일성록』 편찬을 시작한 것에 대한 명분을 강화한 속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조는 당나라 이래로 중서봉비에 시政务을 비교하고, 椙密院에 儀式이를 비치해온 전례를 인용하면서, “우리 왕조에 증경원에 일기를 두고 내閣에 日省록을 두게 된 것도 이러한 의미이다”라 하여, 51) 『일성록』과 『증경원일기』를 따로 두 것은 중국 역대의 전례에 비추어도 타당함을 강조하였다. 정조는 『화성역의궤』 편찬에 있어서도 유공자에 관한 賞典과 같은 내용은 따로 분류하여 책자로 만들어 儀局 및 本府에 보관하고 이것을 『증경원일기』와 『일성록』에 등사하도록 하는 등 주요 국가 기록을 『증경원일기』와 『일성록』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52)

어쨌든 현존하는 『증경원일기』는 『일성록』보다 많은 시대에 걸쳐 그것도 비서실이라는 한 기관에서 구준히 편찬된 책이라는 점에서 『日省録』과는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각 기관의 기록물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산 편찬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기록물들은 전체적으로 보다 반대함과 갈등을 자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증경원일기』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점철되어 정교로써 정통성이 부족하여 현재 『朝鮮王朝實錄』에도 포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증경 원일기』가 구한 말 편찬사료로서 가치는 의미는 보다 커진다. 1876년의 개항 이후에도 조선 왕실의 비서실의 기록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곳에서 쓴 기록이라는 점에서 『증경원일 기』는 『일성록』과 함께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이 지니는 한계성을 보완해 주는 1차 사료로서 의미가 크다. 물론 1894년 이후 증경원의 명칭이 바뀌면서 간행된 『증경원일기』, 『공내부일기』, 『비서감일기』 등 198책의 책은 일제에 의한 내정간섭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제작되어 엄밀한 사료 비판을 요하기는 하지만 왕실의 결과를 요하는 주요 정치적 사건과 궁중의 비화 등이 생생하게 정리되어 있어 근대사를 연구하는 기본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증경원일기』의 기록에는 西勢東潮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나타난 서구 열강과의 외교관계, 외세의 침략에 대한 군사적 대응 등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조선왕실의 모습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서 한말 대외관계사 연구에도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5. 맨앞말

이처럼 역사기록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경원일기』의 자료적

51) "自唐以還, 中書省時政記, 密院課內庭日歷, (…이) 我朝政院之有「日記」, 內閣之有「日省錄」, 亦此義也.” (『弘範全書』 권166 「日得録」, 영인본 56쪽 라)
52) "傳曰: '昨今年貴典, 今整理儀儀. 分類作一冊子, 藏于儀局及本府, 而「政院日記, 「內閣日省錄」, 以此冊子全備.'"(『華域布政儀儀』 권1 傳授 丙辰九月初十日,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상집 224쪽)
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가『조선왕조실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승정원일기』의 자료적 특징을 간략히 언급한 것도『승정원일기』의 내용과 함께 이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본고에서는 주로 승정원의 구성과 역할, 승정원에서 기록한 연대기 기록물인『승정원일기』의 제작, 그리고『승정원일기』가 지니는 자료적 가치와 활용 문제에 대해 주로『조선왕조실록』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해 보았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철대권력자인 조선시대 국왕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왕의 동정, 기분 하나하나까지 능치지 않고 철저하게 정리한『승정원일기』의 기록에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가감 없이 기록된 각종 상소문이나 지방의 관찰자들의 보고문 등에는 사회상의 생생한 모습들이 채워져 있다. 인조대 이 후 조선후기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상세하고 방대한 기록이 되는 것이다. 특히 빠짐없이 기록된 일기 관계 기록은 천문, 기후의 연구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승정원일기』와 같은 조선시대 연대기 기록 자료를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